

주부 나물밥에 물 머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기운 편하고 정신 맑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네.
큰 구름 같은 부귀는 나의 일이 아니니
금대를 향하여 나무 스치는 바람소리 듣고
삼매를 이루어 하오.
-침경 현변 스님-

현대불교

북서하는 불교 시사주간지 02)745-8503
11)285-2680
서울 신계동 3백동
심상선원 041)734-2680
모든 불교 관련 문의는 신복사 대인선사연구소에 문의

1995년 1월 11일 창간 /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20일 수요일(주刊) 제 323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스님, 입장료 내시죠”

“스님, 공원 입장료 내시죠.”
지난 8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청량산도립공원. 경기도 봉양의 한 스님이 신도 2명과 승용차 편으로 공원에서 청량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측과 입장료(대인 800원) 시비가 벌어졌다. 이 스님에 따르면 관리소측은 ‘스님이 청량사에 상주하지 않고 동행한 신도들도 청량사 신도가 아니므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사찰 업무상 청량사를 방문하는 것임에도 스님에게 입장료를 요구한데 화가 난 스님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지난해의 경우 한 스님에게 공원직원이 승려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도립공원 지정(3년 전) 이후 입장료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3월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성지순례를 오는 타지역의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입장료 서비스 한 대당 1만 8,000원은 청량사가 대납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직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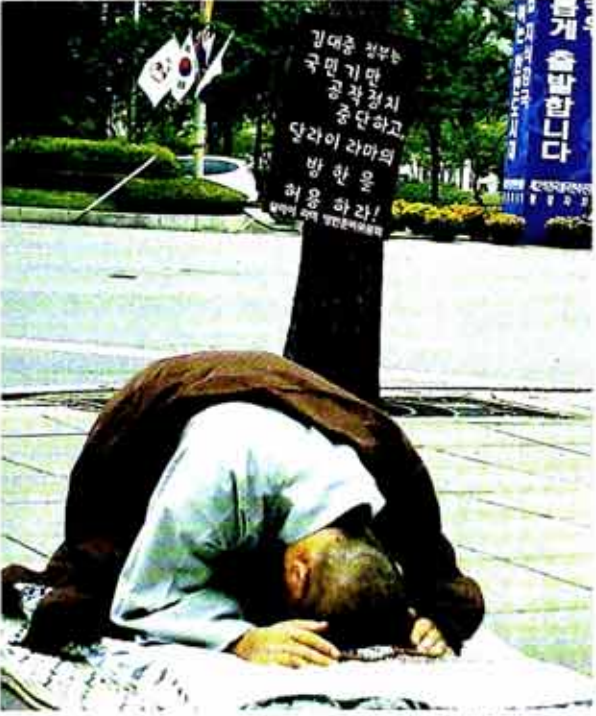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0월 착공

조계종 “4600평 규모 업무·문화 공간”

26일 ‘건립기원 대법회’ 열고 본격 추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오는 10월 착공, 내년 11월 준공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사 경내에 연면적 4600평 규모로 중앙종무 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

원택스님은 “조계사 경내에 기념관을 세움으로써 불자들이 일반 국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불교 흥부산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대법사에 종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원만성취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이 법회를 시작으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굴욕외교 108배 참회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 촉구를 위한 ‘굴욕외교 참회 108배 릴레이 정진’이 11~16일 효림스님(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법장스님(무진법장사 주지), 해조스님(불교정기수후원회 대표) 등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은 13일 오전 108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석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의 정진 모습. 김재경 기자

“해인사 도로 노선변경”

조계종, 건교부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12일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해인사 지방도 59호선(성기-치인구간의 노선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경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은 본종의 현장조사결과 해인사의 수행환경과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이라며 “건설교통부에서 주민권익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해인사와 주민들이 합의한 가야-봉산구간의 도로 59호선 우회노선 변경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a.com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안면암·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랑 안면도 안면암(사진,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황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뜻깊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장군 죽 비

◇ ‘건강’ 보다는 ‘미모’가 높아 평가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다이어트의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8면)

◇ 만해 용성 스님이 지낸 불교 개혁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 있다. 만해와 용성 스님의 후예는 지금 어디에... (15면)

◇ 산골 소녀 영자 山寺로 가다. 티없는 가슴이 또다시 명들지 않도록, 저속한 호기심을 빨리 거두자. (22면)

◇ 갓잡은 노인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아! 즐거운 인생’. (23면)

문화재관람료 소송 ‘신흥사 승소’

조계종 “관람료정책 개선 더욱 노력”

서울지법 민사8판독 재판부(판사 이원형)는 12일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신흥사와 원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원고패소

조계종은 또 “이번 소송의 근본 문제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및 문화재 정책 전반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설악산 자연보호구역 중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신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신흥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성운 기자

◇일 정: 2001년 7월 23일(월)~25일(수) 2박3일
◇장 소: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출가비: 5만원
◇준비물: 잠심도시락(달),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구, 세면도구, 모모
◇출 발: 23일 오전 10시 조계사 / 도착: 25일 오후 5시 조계사
◇문의: 전화 0502-317-2555, 011-317-2555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선재이벤트

협찬: (재)보덕학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사회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불리원, 조계사, 한미음선원, 봉은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 진정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 중에서도 윤년수의(潤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농치지 마십시오

선착순 100분에게 맞춤수의와 삼베 침구세트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삼베 침구 이상)

종류	수량	내용	매리정가	불자정가	특별혜택
삼베 二품	남 30명, 여 10명	삼베의 완성물용 3회 이상 세탁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프나우 박스 보관함
삼베 一품	남 30명, 여 10명	삼베의 완성물용 3회 이상 세탁한 후 정성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프나우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남 30명, 여 10명	단종 삼베에서 개발된 대야 100% 원사 수직으로 삼베의 완성물용을 제작한 후 인공로 건조를 거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한나우 박스 보관함, 삼베 침구 세트 증정
수직 特品	남 30명, 여 10명	단종 삼베에서 개발된 대야 100% 원사를 새로운 제작한 고급 수직제품으로 인공로 건조를 거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한나우 박스 보관함, 삼베 침구 세트 증정
안면포 七세	남 30명, 여 10명	순수 삼베 직면포 100%를 대역직으로 제조하여 직면포인 치자 형태로 제작된 최상의 상품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한나우 박스 보관함, 삼베 침구 세트 증정

■ 멧베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会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 LTD. 본사/공중 경복 안동시 서문면 지리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세상빌딩 1F TEL. 02 586 2544 영업부, 02 586 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